

# “지진 피해 복구 전력 다해달라”

서거석 교육감, 부안 계화중·백산초 등 피해 현장 방문... 학교 관계자들과 복구대책 등 논의

서거석 교육감이 12일 오전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부안 계화중학교와 백산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를 격려하고,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계화중은 본관동과 부속건물에서 일부 미장 균열이 발생했고, 백산초는 교실과 화장실 벽체 일부에서 균열이, 그리고 체육관 처마에서 손상이 발생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진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26분쯤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부안 지역에서는 오후 1시 기준으로 계화중과 백산초를 포함해 총 11개 학교에서 시설 피해가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진 발생 직후 곧바로 전담반을 꾸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점검에 신속히 나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12일 지진 피해를 입은 부안 계화중학교와 백산초등학교 등을 학교 관계자를 격려하고,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 “모든 교육자가 존중받는 따뜻한 학교 만들 것”

전북자치도교육청, '제38회 순직교육자 추모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전주교육문화회관 내 순직교육자 추모탑에서 '제38회 순직교육자 추모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추모제에는 서거석 교육감, 김명지 교육위원장,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와 순직교육자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사와 추도사, 헌화와 분향 등을 진행하며 순직교육자를 기렸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해마다 순직교육자 추모제를 열어 그들의 희생과 헌신, 고귀한 마음을 함께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추념사를 통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전념하기 어려운 요즘, 순직교육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가슴에 와닿는다”며 “한평생 교육자로서 애쓰다 떠나신 순직교육자들과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전주교육문화회관 내 순직교육자 추모탑에서 '제38회 순직교육자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제에서 서거석 교육감, 순직교육자 유가족 등이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이어 “순직교육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사랑하는 모든 교육자가 존중받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단체교섭 개회식'을 갖고, 권한위임을 받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정인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출한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공통교섭 전문, 본문 118조 339항, 부칙 11조와 19항, 직종별 요구안이 담겨 있다.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조합활동 보장 △연차·특별휴가·병가·공가 등 유급휴가 확대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 보건 예방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학교는 12일 오후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 지역 반도체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 유치와 지역 반도체 산업 연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 ‘한마음’

전북대, 대학·지자체·지역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 유치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 지역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지자체와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IST 전북분원 등 유관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 반도체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 유치와 지역 반도체 산업 연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연구·교육의 중앙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대 반도체공

동연구소와 지역 거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지난해 권역별로 4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올해는 비수도권 국립대학 2곳을 추가 공모 중이다. 이에 지난해 미선정됐던 전북대가 재공모에 나섰으며, 이달 말 최종 선정되면 2028년까지 건립비 164억 원과 기자재비 280억 원 등 총 444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지역의 혁신기관들과 함께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은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생 창작 활동·진로 탐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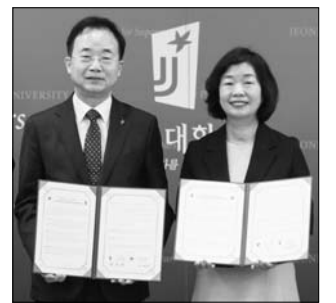
전주대, 전주여고와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1일 대학 본관에서 전주여자고등학교(교장 이영숙)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여고 이영숙 교장, 안혜정 교사, 박진배 총장, 윤찬영 대외부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래 유망 산업 관련 및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특강과 진로 탐색 활동 지원 △교육 자원(시설, 연구진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실험·실습형 탐구 프로젝트 활동 운영 △학생 교류를 통한 교육 봉사활동 지원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여고 학생들의 창작 활동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보건 및 식품 분야 학과와 연계된 15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습 및 소논문 작성 활동을 운영하게 된다. 박진배 총장은 “고교-대학 연계 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여고의 창의적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이 한 차원 높게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숙 교장은 “전주대와 협력을 통해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간호학과와 식품 관련 학과에서 수준 높은 실습과 실습을 경험하고, 전문성을 키울 기회를 얻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